

사법적 의사결정시 나타나는 배심원 판단편향: 검사구형량의 정박효과*

이 유 미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조 영 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의 영향을 받아 그 정보의 근사치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정박효과(anchoring effect)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들이 사법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나타나는 정박효과를 연구 주제로 설정하였다. 사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검사구형량이 정박점으로 작용하여 최종 판결되는 양형이 검사구형량과 유사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배심원 자격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범죄사건의 경중과 정박크기에 따른 정박효과와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범죄사건에서 경범죄사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범죄사건의 저정박 조건에서 고정박 조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정서상태에 따라 정박효과가 달라짐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분노정서를 느낄 때 슬픔정서를 느낄 때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박효과를 약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 3에서는, 정박효과와의 접근가능성 모델이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할 때 정박효과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배심원의 사법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박효과와 관련된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판단편향, 정박효과, 사법적 의사결정, 배심원 의사결정, 국민참여재판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조영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부교수,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영국드라마 「셜록」에서는 셜록의 적수 모리 아티가 배심원들을 협박하여 자신에게 무죄평결을 내리도록 만드는 장면이 나온다. 이처럼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할 수 있던 배심원 제도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으로 선정된 시민은 직접 공판에 출석하여 법정 공방을 지켜보고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적절한 양형을 논의하며,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참고하여 최종 판결을 내린다.

배심원들이 평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고 사법제도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배심원 의사결정의 오류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김대성, 2012; 김병수, 2010; 박형관, 2012; 조인현, 2013).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으로 나뉜다. 유·무죄판단은 사실관계를 따져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양형판단은 유죄로 결정된 피고인에 대해 형의 종류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양형에 관한 의사결정은 고도의 법률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더 복잡하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김대성, 2012). 그러나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법과 양형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여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편이다(김병수, 2010; 박형관 2012).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내리는 평결과 양형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재판부가 배심원 평의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법원행정처, 2016). 덧붙여서, 양형판단은 평결이 유죄인 경우에 한하여 판사와 함께 토의한 후

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전문가인 법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배심원이 양형판단을 진행하지만 배심원들이 법관과 토의를 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들이 양형판단을 내릴 때 일어나는 판단편향과 편향 감소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사법적 의사결정과 판단편향

사법적 의사결정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안대회, 2010). 이러한 요인들은 인종, 매력, 성별 등의 피고인 특징(Desantts & Kayson, 1997), 과거 이력 및 경험 등의 피해자 특징(이지혜, 박우현, 이수정, 2014), 법관의 사상 및 가치관 등 법관의 특징(안대회, 2010), 법정 공방 시 사용되는 진술의 표현(Schmid, Fiedler, Englich, Ehrenberger, & Semin, 1996), 휴리스틱 사고로 인한 판단편향(Guthrie, Rachlinski, & Wistrich, 2002)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재판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판단편향의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휴리스틱(heuristics)이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가 아닌 직관적이고 단순한 인지처리를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판단의 오류를 판단편향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끊임없이 방대한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결정을 심사숙고하여 내리기에는 인간의 인지능력이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정보의 범위와 양이 한정되어 있고 주어진 시간 또한 제한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화 방략인 휴리스틱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휴리스틱은 다양한 영역에서 흔하게 일어

나며 사람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다(Fiske & Taylor, 1991; Tversky & Kahneman, 1974). 문제는 휴리스틱이 형사재판 처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휴리스틱으로 인해 사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판단편향으로는 확증편향, 사후과잉 확신 편향, 틀 효과, 정박효과 등이 있다(박광배, 김상준, 한미영, 2005; Guthrie et al., 2002; Korobkin & Guthrie, 1994). 본 연구에서는 이중 정박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편 배심원들은 판사들에 비해 법률 지식과 법정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편향에 더욱 취약하다(김청택, 최인철, 2010).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상의 특징도 배심원들의 판단편향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재판과 달리 배심원 일정을 배려하여 공판 절차를 하루 동안 한 번에 진행한다. 한꺼번에 접하는 방대한 정보는 인지적 부담을 주며 장시간 재판으로 인한 육신적 피로는 논리적 사고를 저해시킨다(Cheng & Holyoak, 1985). 더욱이 정보를 충분히 심사숙고할 평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에 미루어 볼 때(박형관, 2012), 휴리스틱의 영향을 더 쉽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배심원들은 법적 지식과 사법경험의 부재, 인지 부담, 육신 피로, 충분하지 못한 시간 때문에 편향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덧붙여서, 사법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타인의 인생에 대하여 주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중범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책임감을 높게 느껴 전문가에 대한 의존이 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김상아, 2016). 따라서 전문가에 대한 의존으로 인하여 정박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

아질 수 있다.

정서 상태와 판단편향

정보처리는 두 경로 중 하나를 거쳐 이루어진다. 하나는 자동적이고, 빠르며,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과정인 반면, 다른 하나는 의도적이고, 상대적으로 느리며, 분석적이고, 노력을 요구하는 처리과정이다(Epley & Gilovich, 2005). 둘 중 어느 처리과정이 사용되는지 여부에는 여러 요인들이 관여하고 이 요인에는 우리가 느끼는 정서가 포함된다.

정보처리 방식과 정서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영향을 비교하였다(Ambady & Gray, 2002; Forgas, 1998; Forgas & Bower, 1987; Park & Banaji, 2000). 예를 들어, 행복한 사람은 휴리스틱을 더 많이 사용하고 상세한 정보를 처리하는 작업에는 약한 경향이 있으며, 우울하거나 슬픈 사람들은 체계적이고 세밀한 처리 과정을 사용하며 신속한 처리에는 약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긍정정서를 느끼는 사람들이 부정정서를 느끼는 사람들에 비해 편향적 판단을 더 많이 내리게 된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배심원들을 인터뷰한 연구에서는 재판에서 다루는 정보들이 배심원들의 감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고 있다(Hafemeister, 1993). 범죄재판은 폭력적이고, 잔혹하고, 때로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다루며 화가 나게 하거나 우울하게 만드는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배심원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하므로(Semmler & Brewer, 2002), 주어진 정보를 깊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판에서 다루어진 내용에 기초하여 배심원들은 분노 또는 슬픔을 느끼게 된다.

분노와 슬픔은 둘 다 부정적 정서이지만 각각 다른 인지처리경로를 활성화시킨다.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간편하게 처리하고 성급하고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Bodenhausen, Sheppard, & Krammer, 1994). 반대로 슬픔을 느끼는 사람은 정보를 처리할 때 주의 깊게 생각하며 자세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Cooley & Nowicki, 1989; Forgas, 1998). 박희정(2015)의 연구에서는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에 비해 영상의 거짓 여부를 잘 판단하지 못하였다. 또한 Semmler와 Brewer(2002)의 연구에서는 슬픔을 느끼는 참가자들이 증인 진술에서 불일치하는 내용을 더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분노를 느낀 참가자들은 증인의 진실성을 잘 판단하지 못하였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해당 분야의 비전문가는 전문가에 비해 정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Srull, 1987). 법률 비전문가인 배심원들은 사법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판사들에 비해 정서의 영향을 받기가 더 쉬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 자격이 있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노 또는 슬픔 정서에 따라 정박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사법적 의사결정과 정박효과

정박효과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두 경우 모두에서 나타난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 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정박점으로 작용하여 편향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Guthrie 등(2002)은 판사들에게 민사재판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최종 배상액을 결정하게 했다. 그 결과 원고 측 변호사가 청구하는 액수

가 높아질수록 판사들이 선고하는 최종배상액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민사재판 상황의 정박효과는 현역판사와 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김청택, 최인철, 2010; 박광배 등, 2005; Chapman & Bornstein, 1996; Robbenolt & Studebaker, 1999).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양형을 내림으로써 피고인의 인생에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검찰 측 구형량이 정박점으로 작용하여 최종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다. Englich와 Mussweiler(2001)는 판사와 법대생들에게 강간사건 시나리오를 읽은 후 최종 양형을 결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판사와 법대생 모두 검사구형량이 낮게 제시된 경우보다 높게 제시된 경우에 더 높은 양형을 선고하였다. 이 같은 형사재판 상황의 정박효과는 우리나라 현역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다(박광배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형사재판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박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단순히 형사재판에서 정박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혹은 더 약하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하였다.

정박효과를 강화시키는 요인

정박효과는 사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항상 동일한 정도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재판에서 다루는 범죄사건이 중대하고 파급력이 큰 사건일수록 판단자의 부담이 높아지고 정박효과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중범죄는 경범죄에 비해 형량기준

이 높으며, 살인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과 사형까지 가능하므로 재판 결과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생기고, 법 전문가인 검사의 구형의견은 이러한 부담과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참고할 만한 기준점으로 생각되어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한편 검사구형량 크기에 따라서도 정박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사법적 의사결정과 정박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하나의 사건 시나리오에 대해 낮은 검사구형량과 높은 검사구형량을 제시하고, 각 구형량에 따른 참가자들의 양형 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박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검사구형량의 크기에 따라 정박효과의 정도가 달라지는지는 검증하지 않았다. 실제 재판에서도 검찰 측이 적정 형보다 더 높은 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검찰 측 구형량이 높게 제시됨에 따라 그 영향으로 최종 선고 양형도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안대회, 2010). 그러나 Simmons, LeBoeuf, 그리고 Nelson(2010)에 의하면 주어진 정박점이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아서 조정 방향을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박효과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도 검사구형량이 터무니없거나 그럴듯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박효과가 약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법적 의사결정에서 정박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사건의 경중과 검사 구형량 크기를 선택하여 정박효과를 비교하였다.

정박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

사람들은 정박점이 적절하지 않은 정보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무시하지 못한다. English, Mussweiler와 Strack(2006)의 연구에서는 법관들이 시나리오의 검사 구형량이 실험을 위해 무작위로 선택된 수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구형량 근처의 값으로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준다고 하여 정확한 답을 맞추고자 하는 정확성 동기를 증가시켰으나 여전히 정박효과가 나타났다(Chapman & Johnson, 2002; Tversky & Kahneman, 1974). 반면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정박점을 제공하지 않고 참가자가 스스로 정박점을 생성했을 경우에는, 주의나 보상을 통해 정박효과가 약해지는 것이 발견되었다(Epley & Gilovich, 2005).

정박효과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에는 두 모델이 존재한다. 먼저 정박-조정 모델에서는 어떤 값에 대한 추정치를 생각해야 할 때, 처음에 주어진 값에 정박(anchoring)한 후 그 값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답을 낸다고 본다(Tversky & Kahneman, 1974). 이 때 자신이 만족하고 확신할 때까지 조정과정을 반복하는데, 정확성 동기가 없는 경우 이 조정과정이 불충분하여 최종 결정이 정박점 근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Tversky & Kahneman, 1974). 한편 접근가능성 모델에서는, 사람들이 '실제값과 정박점이 유사할 것인가'라는 가설에서 추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정박점이라는 정보에 대한 접근근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즉 정박점 수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옳고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되며, 정박점 관련 정보가 더 기억에 잘 남고 쉽게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박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다(Strack & Mussweiler, 1997). 접근가능성 모델에 의하면 조정은 본래 일어나지 않는 과정이며 정확성

동기가 있어도 그것이 정박효과를 약화시키지 못한다.

정확성 동기가 있으면 조정을 충분히 하게 되는 정박-조정 모델은 외부에서 정박점이 주어졌을 때보다 판단자가 스스로 정박점을 설정했을 때 이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다(Epley & Gilovich, 2005; Simmons et al., 2010). 검사구형량은 외부에서 제공되는 정보이며, 특히 그 출처가 권위 있는 전문가인 검사이기 때문에 애초에 접근가능성 모델을 활성화시켜 정확성 동기가 있어도 조정과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접근가능성 모델이 아닌 정박-조정 모델을 활성화시켜 판단과정에서 조정을 하게 함으로써 정박효과를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목표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실험을 통해 사법적 의사결정 시 정박효과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조건과 정박효과를 약화시키는 방안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형사재판 시나리오와 검사구형량을 제시하고 피고인의 최종 양형을 결정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실험에서는 범죄사건의 경중과 정박점의 크기가 정박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

서는 재판에서 유발되는 정서가 정박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검사구형량을 듣기 전 스스로 적정 양형을 생각하게 하고 정확성 동기를 유발시킬 때 정박효과가 약화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정박효과와 정도가 범죄사건의 경중과 정박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하나의 실험에서 한 개의 범죄 시나리오만을 사용했던 선행연구들과 달리(박광배 등, 2005; English & Mussweiler, 2001), 본 연구에서는 범죄의 경중을 조작하기 위해서 경범죄 시나리오(절도)와 중범죄 시나리오(살인) 두 개를 제시하고 이들 간의 정박효과를 비교하였다.

한편 정박점의 크기가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아서 조정방향을 확신하는 경우에는 정박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Simmons, LeBoeuf, & Nelson, 2010)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검사 구형을 제시하는 조건과 부적절한 검사 구형을 제시하는 조건을 나누었다. 중범죄 사건은 사건 내용에 비해 낮다고 생각되는 구형을 제시하는 조건(저정박 조건)과 비교적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구형을 제시하는 조건(고정박 조건)으로 나누었다. 죄질이 무거운 중범죄 사건에 너무 낮은 형이 제시된다면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여 더 높은 최종 양형을 결정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박효과가 약해질 것이다. 반대로, 경범죄사건은 사건에 비해 너무 높다고 생각되는 구형을 제시하는 조건(고정박 조건)과 비교적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구형을 제시하는 조건(저정박 조건)으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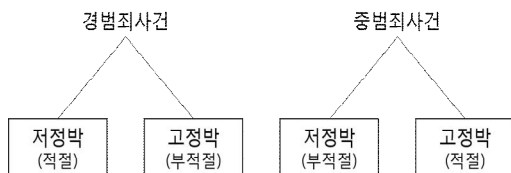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설계 모형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너무 높은 형이 제시된 다면 처벌이 과하다는 생각을 하거나 반발심이 들어 더 낮은 최종 양형을 선택할 것이고 정박효과가 약해질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검사구형량이 제시된 시나리오를 읽고 최종 양형을 결정했을 뿐 아니라 해당 사건의 심각성 정도에 대해서도 응답하게 하였다. 이는 검사구형량이 범죄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해당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순히 최종 양형판단만 달라지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연구 1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1. 중범죄사건에서 경범죄사건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2. 경범죄사건에서는 저정박이 제시될 때 고정박이 제시될 때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3. 중범죄사건에서는 고정박이 제시될 때 저정박이 제시될 때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참가자

서울 소재 4년제 여자대학교의 학부생 74명이 참여하였다(연령: 평균 = 21.53세, 표준편차 = 1.38).¹⁾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겪는 정신적 충격은 연령 별로 차이가 없으며 배심원 학력 비율은 '대학 재학 및 졸업'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행정처, 2014). 또한 재판 이해 정도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수형, 2011). 이에 여자 대학생 표본이 배심원 수행에 있어 잠재적 배심원 집단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실험도구

시나리오

연구를 위해 사용한 시나리오는 실제 범죄 사건을 참고하여 제작한 후 현직 경찰관 1인과 범죄심리학자 1인으로 총 2명의 범죄전문가에게 감수 받았다. 경범죄 시나리오는 절도 사건, 중범죄 시나리오는 살인사건으로 구성되었다. 두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피고인의 성별, 나이 및 직업은 동일하였다. 또한 각 시나리오를 검사구형량에 따라 저정박 조건과 고정박 조건으로 나누었다. 절도사건의 저정박은 2년, 고정박은 7년이었으며, 살인사건의 저정박은 6년, 고정박은 18년이였다²⁾.

선행연구들에서 사건을 간단히 요약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재판처럼 검사와 변호사가 공방을 벌이는 형식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현실성을 높였다. 시나리오 마지막 부분에는 검사, 변호사, 피고인의 최종진술이 제시되었고, 검사의 최종진술에는 구형량이 포함되어 이것이 정박점으로 작용하도록 했다.

1) 법률 제 13762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참여재판법) 제 16조에 따르면,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며, 전과가 있거나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선정될 수 없다.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절도사건의 적정양형은 1~3년이다. 살인사건은 기본양형 10~16년에 계획적 살인,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의 가중요소가 인정될 시 그 이상의 구형이 가능하다.

의사결정 질문

시나리오를 읽은 참가자들에게는 두 개의 질문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질문은 시나리오의 범죄의 심각성을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는 것이었다(“위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 매우 낮다, 7 = 매우 높다). 두 번째 질문은 최종 양형을 판단하도록 하는 질문이었으며, “n년” 또는 “n년 n개월” 등 주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피고인에게 몇 년의 징역형을 내리시겠습니까?”).

연구설계 및 절차

참가자들은 본 연구가 시민이 범죄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알아보는 조사라고 소개받은 뒤 시나리오를 받았다. 한 명의 참가자는 절도와 살인 시나리오를 모두 읽게 되었다. 이 때 절도 시나리오의 정박조건 중 하나, 살인 시나리오의 정박조건 중 하나를 무작위로 제시받았다. 절도 및 살인 시나리오가 제시되는 순서는 순서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균형화(counter balanc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범죄의 경중은 피험자 내 변인, 정박조건(검사구형량의 크기)은 피험자 간 변인로서 총 실험조건은 네 개였다.

참가자들은 첫 번째 시나리오를 읽고 범죄의 심각성과 양형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읽고 같은 질문들에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에는 약 10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사례로 1,500원 상당의 보상을 받았다.

결과

각 시나리오에 대해 참가자들이 응답한 심각성 점수와 최종 양형의 값을 각 조건 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경범죄사건에서 고정박이 제시되었을 때가($M = 64.11, SD = 17.51$) 저정박이 제시되었을 때보다($M = 35.36, SD = 24.17$) 최종 양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71) = 5.83, p < .001$. 마찬가지로 중범죄 사건에서도 고정박이 제시되었을 때가($M = 233.03, SD = 203.44$) 저정박이 제시되었을 때보다($M = 105.44, SD = 50.48$) 최종 양형이 더 높았다, $t(67) = 3.35, p = .001$. 다시 말해 경범죄와 중범죄 사건 모두 정박점인 검사구형량이 높을수록 최종 양형이 높았는데, 이는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정박효과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한편 심각성 점수를 살펴본 결과, 경범죄사건에서는 정박조건에 따라 심각성점수 간 차이가 없었으나, $t(56) = 0.05, p = .96$, 중범죄 사건에서는 심각성점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63) = 2.43, p < .05$. 즉, 중범죄사건에서는 고정박 조건에서($M = 6.56, SD = 0.61$)

표 1. 정박조건에 따른 심각성 점수와 양형의 평균과 표준편차(연구 1) ($N=74$)

	경범죄(절도)		중범죄(살인)	
	저정박 (24월)	고정박 (84월)	저정박 (72월)	고정박 (216월)
사례수	36	37	32	37
심각성	4.83 (0.71)	4.82 (1.04)	6.13 (0.81)	6.56 (0.61)
양형	35.36 (24.17)	64.11 (17.51)	105.44 (50.48)	233.03 (203.44)

주. 양형의 단위: 개월 수

저정박 조건보다 ($M=6.13, SD=0.81$)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문제인 정박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양형과 정박점 사이의 거리값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표 2). 거리값은 Epley와 Gilovich(2001)가 제안한 방법대로, 최종 판단값에서 정박점을 뺀 절대값을 표준편차로 나눈 표준점수를 사용하였다. 이 거리값이 작을수록 최종 양형과 검사구형량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정박효과가 강한 것이며, 거리값이 클수록 최종 양형과 검사구형량 사이의 거리가 먼 것이므로 정박효과가 약한 것을 의미한다. 비교 결과, 중범죄사건의 거리값이($M = 0.60, SD = 0.91$) 경범죄사건의 거리값보다

($M = 0.98, SD = 0.88$)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t(140) = 2.51, p < .05$). 이는 가설 1-1에서 예상했듯이 중범죄사건에서 경범죄사건보다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각 사건의 정박조건 별로 정박효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건의 경중과 정박조건이 거리값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138) = 6.08, p < .01$. 구체적으로 경범죄사건의 고정박 조건에서 나머지 세 조건들에 비해 정박효과가 약하게 나타났다. 나머지 세 조건 간에는 정박효과의 평균값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유형 별로 정박조건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경범죄사건의 경우 정박점에 따라 거리값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1, 138) = 9.81, p < .01$. 즉 경범죄사건의 고정박 조건보다($M = 1.28, SD = 0.80$) 저정박 조건에서($M = 0.67, SD = 0.87$) 정박효과가 더 강하였다. 이는 가설 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중범죄사건의 경우에는 저정박 조건과 고정박 조건 간 거리값의 차이가 없어 가설 1-3은 지지되지 않았다, $F(1,138) = 2.24, p = .14$.

표 2. 양형과 정박점 간 거리(연구 1) ($N=74$)

	경범죄(절도)		중범죄(살인)	
	저정박 (24월)	고정박 (84월)	저정박 (72월)	고정박 (216월)
거리값	0.67 (0.87)	1.28 (0.80)	0.78 (0.91)	0.45 (0.90)
합계	0.98 (0.88)		0.60 (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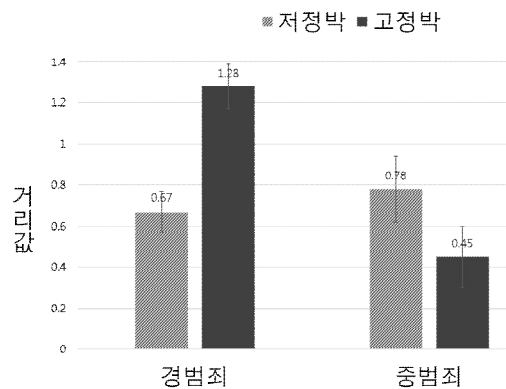


그림 2. 경범죄 시나리오와 중범죄 시나리오에서 정박크기에 따른 정박효과의 차이(연구 1)

연구 1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범죄사건에서는 검사구형량에 따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다. 정박효과는 고정박 조건에서 저정박 조건보다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경범죄사건에서는 적정 형보다 높은 검사구형량이 제시되어도 사건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최종 결정에 있어서도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범죄사건에서는 심각성점수가 고정박 조건에서 저정박 조건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정박효과는 정박조건 간에 차이가 없었다. 즉 중범죄사건에서는 경범죄사건과 달리 검사구형량에 의해 사

건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이 영향을 받았고, 또한 검사구형량이 낮은 높은 이에 가까운 최종 양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범죄사건 재판 내용에 대하여 양형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배심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정서의 상태(슬픔 vs. 분노)에 따라 정박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분노정서를 느낄 때 슬픔정서를 느낄 때 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참가자

경기도와 인천 소재 4년제 대학교의 만 20세 이상 학부생 93명이 온라인으로 참가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7명과 정서상태가 조작되지 않은 22명을 제외한 7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의 성별은 남자는 31명(43.7%), 여자는 40명(56.3%)이었다(연령 평균 = 22.48세, 표준편차 = 2.29).

실험도구

정서조작 동영상

참가자들의 정서를 슬픔 또는 분노상태로 조작하기 위해 동영상 자극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다큐멘터리와 뉴스 동영상을 선정하여 약 3분 길이로 편집하였다.

감정형용사 목록

정서조작 동영상을 시청한 후 해당 정서가 유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정형용사 목록을 사용하였다. 이 목록은 장효진(2001)의 감정형용사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슬픔을 나타내는 형용사 3개("슬픈, 애잔한, 눈물겨운"), 분노를 나타내는 형용사 3개("분노의, 화가 난, 분개한"), 그 외의 형용사 4개("기쁜, 열정적인, 활기찬, 흐뭇한")로 구성하였다. 참가자들은 각각의 형용사 감정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다음의 감정 상태를 현재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까?"; 1 = 전혀 느끼지 않음; 5 = 매우 강하게 느낌).

재판 애니메이션

연구 1과 마찬가지로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으로 이루어진 재판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서면 시나리오를 사용했던 연구 1과 달리, 연구 2에서는 실제감과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된 동영상을 사용하였다. 재판의 내용은 살인사건으로,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하여 약 3분 분량으로 제작하였다.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의 성별은 하나의 성별(남성)로 통일하였으며, 목소리 톤과 속도를 최대한 유사하게 녹음하고 편집하였다. 검사구형량은 시나리오 사건의 적정 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20년이 제시되었다.

의사결정 질문

의사결정 질문은 연구 1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는 질문과, 양형을 결정하는 주관식 질문 두 개였다.

연구설계 및 절차

참가자들은 본 연구가 시민들이 범죄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사결정 관련 조사라고 소개받았다. 이들은 먼저 할당된 조건에 따라 슬픔 또는 분노를 유도하는 동영상 시청한 후, 해당 정서가 유발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감정형용사 목록에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이후 재판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뒤, 범죄의 심각성과 양형판단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또한 마지막 절차로, 정서조작 동영상으로 유도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2분 분량의 예능동영상을 시청하였다. 모든 절차에는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로 1,200원 상당의 쿠폰을 받았다.

결과

먼저 정서조작 확인을 위해 감정형용사 목록에 대한 응답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각 조건에서 유도하고자 하는 정서의 점수가 매우 낮거나, 또는 유도하고자 하는 정서(예: 슬픔)와 유도되지 않아야 하는 정서(예: 분노)가 둘

표 3. 정서조건에 따른 심각성, 양형, 거리값의 평균과 표준편차(연구 2) (N=71)

		사례수	심각성	양형	거리값
정서 상태	슬픔	37	6.03 (1.04)	167.73 (71.01)	1.20 (0.76)
	분노	34	6.21 (0.88)	245.71 (137.71)	0.72 (0.69)

주1. 양형의 단위: 개월 수

주2. 거리값이 작을수록 정박효과가 강한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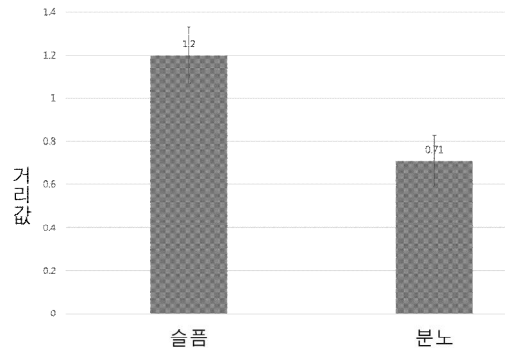


그림 3. 슬픔조건과 분노조건에서 정박효과의 차이 (연구 2)

다 높은 사례들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유도정서의 점수가 5점 만점 중 3점 미만으로 매우 낮거나, 유도정서와 유도되지 않아야 하는 정서의 점수 차이가 0.5점 이하인 사례들은 분석에서 제외(슬픔조건 = 6명, 분노조건 = 16명)하였다.

심각성점수, 최종 양형, 거리값을 구하여 각 조건별로 비교하였다. 심각성점수는 슬픔조건과 분노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69) = 0.78, p = .44$. 그러나 최종 양형은 분노조건에서 슬픔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48.45) = -2.96, p < .01$. 구체적으로, 분노조건의 최종 양형은($M = 245.71, SD = 137.71$) 시나리오의 정박점인 240월과 근접한 반면, 슬픔조건의 최종 양형은($M = 167.73, SD = 71.01$) 정박점인 240월보다 낮았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거리값은 연구 1과 마찬가지로, 각 참가자들이 내린 양형값(월)에서 정박점(240월)을 뺀 절대값을 표준편차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그 결과, 슬픔조건과 분노조건 간에 거리값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69) = 2.80, p < .01$. 구체적으로 분노

조건에서($M = 0.71, SD = 0.69$) 슬픔조건에 비해($M = 1.20, SD = 0.76$) 거리감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노정서를 느낄 때 슬픔정서를 느낄 때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연구 3

연구 3에서는 검사구형량을 듣기 전에 스스로 걱정 양형에 대해 생각해보고 정박효과에 대한 주의를 듣는 경우 정박효과가 감소하는지 검증하였다. 외부에서 정박점이 주어질 경우에는 접근가능성 모델이 활성화되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는 동기가 있어도 판단과정에서 조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판단자가 스스로 정박점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으면 조정이 일어나고 결국 정박효과는 약해지게 된다. 검사구형량은 외부에서 제공되는 정박점이므로 단순한 주의나 교육을 통해 정확성 동기를 증가시킨다 하여도 그 영향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연구 3에서는 참가자들을 정박효과에 대한 주의를 듣지 않는 조건(무주의 조건), 정박효과에 대한 주의를 듣는 조건(주의 조건), 스스로 걱정 양형을 생각해보고 정박효과에 대한 주의를 듣는 조건(조정주의 조건)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1. 검사구형량이 제시되기 전에 스스로 걱정 양형을 생각하고 정박효과에 대한 주의를 받는 경우 정박효과는 감소할 것이다.

가설 3-2. 검사구형량이 제시되기 전에 스스로 걱정 양형을 생각해보지 않고 정박효과에 대한 주의만 받는 경우 정박효과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연구참가자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의 만 20세 이상 학부생 108명이 참가하였다. 남자는 41명(41.4%), 여자는 58명(58.6%)이었다(연령: 평균 = 21.99세, 표준편차 = 3.37). 다만, 연구에 불성실하게 참여했거나, 연구를 마무리 짓지 못한 9명을 제외하고 최종분석에서는 99명의 반응이 사용되었다.

실험도구

재판 애니메이션

연구 2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3분 분량의 동영상을 사용하였다. 재판의 내용은 살인이었으며 검사구형량은 20년이 제시되었다.

주의문

합리적으로 양형을 결정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정박효과에 대한 주의문을 제시하였다. 조정주의 조건과 주의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다음의 주의문을 최종 양형을 결정하기 전에 읽도록 하였다.

“인간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기준점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그 근처의 값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구형량은 기준 또는 최종 양형선고가 아니며 검찰 측의 의견일 뿐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형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보신 범죄사건은 피고인, 피해자, 유족들의 인생이 달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심사숙고하시어 최대한 올바르게 객관적인,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무주의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주의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의사결정 질문

의사결정 질문은 연구 1 및 2와 동일하게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는 질문과, 양형을 결정하는 주관식 질문 두 개가 제시되었다.

연구설계 및 절차

참가자들은 본 연구가 시민들이 범죄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사결정에 대한 조사는라는 소개를 받고, 세 개의 조건(조정주의, 주의, 무주의) 중 하나에 무선할당 되었다. 이들은 재판 애니메이션을 보고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내려달라는 설명을 들었다. 조정주의 조건의 경우, 참가자가 동영상 시청하다가 검사구형량이 제시되는 검찰 측 최종진술이 나오기 전에 동영상 중단되었다. 이때 참가자는 범죄자에게 내릴 적정 양형에 대해 생각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적정 양형을 적은 뒤 검사구형량이 제시되는 영상의 후반부 부분을 마저 시청하였다. 영상이 모두 끝난 후 사건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으며, 주의문을 읽고 최종 양형판단 질문에 답하였다. 반면 주의 조건의 참가자는 중간에 적정 양형에 대해 생각해보는 절차 없이 동영상을 한 번에 모두 시청한 후, 주의문을 읽고 양형을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주의 조건의 참가자는 동영상을 한 번에 시청한 후 주의문을 읽지 않고 양형을 결정하였다.

모든 절차에는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로 1,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결과

참가자들이 평가한 심각성점수, 최종 양형, 거리값을 구하여 각 조건별로 비교하였다. 세 집단 간 심각성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F(2, 94) = 1.54, p = .22$, 최종 양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F(2, 96) =$

표 4. 각 조건에 따른 심각성, 양형, 거리값의 평균과 표준편차(연구 3) (N=99)

	사례수	심각성	최종 양형	거리값
조정주의	31	5.77 (0.81)	144.10 (55.76)	1.72 (1.00)
주의	32	5.68 (0.95)	196.31 (95.52)	0.88 (0.64)
무주의	36	6.03 (0.79)	180.67 (68.80)	1.06 (0.79)

주1. 양형의 단위: 개월수
주2. 거리값이 작을수록 정박효과가 강한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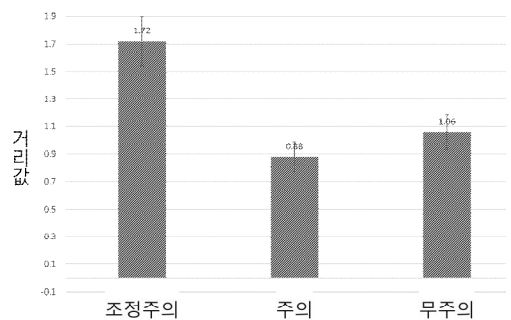


그림 4. 조정주의, 주의, 무주의 조건의 정박효과와의 차이(연구 3)

4.01, $p < .05$. 구체적으로 조정주의 집단의 최종 양형이($M = 144.10$, $SD = 55.76$) 주의 집단과($M = 196.31$, $SD = 95.52$) 무주의 집단의($M = 180.67$, $SD = 68.80$) 최종 양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박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거리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 간 거리값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2, 96) = 9.21$, $p < .001$. 이 차이가 어느 집단 간에 유의미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정주의 집단의 거리값이($M = 1.72$, $SD = 1.00$) 주의 집단과($M = 0.88$, $SD = 0.64$) 무주의 집단보다($M = 1.06$, $SD = 0.79$)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정주의 집단에서 주의 집단과 무주의 집단에 비해 정박효과가 약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정주의 집단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검사구형량의 영향을 덜 받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주의 집단과 무주의 집단 간 거리값은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가설 3-1과 3-2를 모두 지지하는 결과이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결정이 검사구형량에 영향을 받는 정박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정박효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더욱 구체화하여 정박효과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정도로 나타나는 것인지 확인하고, 강력한 현상이라고 알려진 정박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에 연구 1과 연구 2를 통하여 어떠한 조건에서 정

박효과가 더 강하게 또는 더 약하게 일어나는지 밝히고, 연구 3에서 정박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1에서는 사건의 경중과 검사구형량(정박점)의 크기에 따른 정박효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범죄사건(절도)과 중범죄사건(살인) 모두 검사구형량에 따라 최종 양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박효과가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주된 관심사였던 정박효과의 정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범죄사건의 양형판단을 하는 경우에 경범죄사건의 양형판단을 하는 경우보다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검사구형량 크기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경범죄사건의 고정박(7년) 조건에서 저정박(2년) 조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약하게 나타났다. 반면 중범죄사건에서는 정박점 크기(6년 vs. 18년)에 따른 정박효과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경범죄사건에서는 사안에 비해 부적절하게 높은 검사구형량이 제시되면 이에 대한 반발로 정박효과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중범죄사건에서는 사안에 비해 부적절하게 낮은 검사구형량이 제시되어도 정박효과가 약해질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중범죄사건은 경범죄사건에 비해 사안이 중대하고 양형기준도 높아, 최종 선고형이 피고인,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더러 사회에도 큰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사람들은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 후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전한 의사결정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다(김상아, 2006). 이처럼 책임감을 더 느끼는 중범죄사건

에서는 검사구형량이 자신의 판단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되어 결과적으로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수형(2011)이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양형판단에 어려움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형을 결정하며 느끼는 부담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담감을 느끼는 조건에서는 휴리스틱적 사고가 더 발현되기 쉽고(Pratkanis, 1989).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연구 2에서는 정서상태와 정박효과의 관계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에 비해 양형판단 시 정박효과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노를 느낄 때는 휴리스틱적 처리가, 슬픔을 느낄 때는 주의 깊고 체계적인 처리가 활성화된다는 기존 연구결과들로 설명 가능하다(Bodenhausen et al., 1994; Cooley & Nowicki, 1989; Forgas, 1998). 사법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사건 관련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심원이 사법적 의사결정 전문가인 법관에 비해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우려에 비추어 볼 때(박형관, 2012), 강렬한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배심원들이 감정적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연구 3에서는 정박효과를 약화시키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검사구형량을 듣기 전 스스로 적정 양형을 생각해보고 최종 결정 전에 주의문을 읽은 조건에서는, 주의문만 읽었거나 주의문을 읽지 않은 조건보다 정박효과를 약하게 보였다. 주의문만 읽은 조건의 정박효과는 주의문을 읽지 않은 조건과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정박효과에 대한 주의를

주어 객관적 판단을 하려는 동기를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부에서 정박점이 제공될 때에는 접근가능성 모델이 활성화되어, 정확성 동기가 있어도 조정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한다(Chapman & Johnson, 2002; Epley & Gilovich, 2005). 접근가능성 모델에서는 정박점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박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검사구형량을 듣기 전에 스스로 적정 양형을 생각해보는 경우에는 검사구형량 뿐 아니라 스스로 생각한 양형 또한 접근 및 참고 가능한 유용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제공된 정박점인 검사구형량의 영향이 약해지고 조정과정을 거쳐 정박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정박효과에 대한 주의를 주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으며,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법적 의사결정 시 정박효과가 나타난다는 단순한 확인을 넘어서, 정박효과가 항상 동일한 정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또는 더 약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존재함을 밝히고 나아가 정박효과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들을 통해 실제 재판에서 정박효과가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지는 한계점들 또한 존재한다. 아래에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연구 1은 범죄의 유형을 단순히 경범죄와 중범죄로 나누고 연구자의 임의로 경범

죄는 절도사건, 중범죄는 살인사건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피고인의 성별, 연령 및 직업을 통일하였다. 그러나 실제 범죄의 종류는 강도, 사기, 폭행, 성폭력, 살인미수 등으로 다양하고,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직업 또한 굉장히 다양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사법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Desantts & Kayson, 1997), 후속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사건 유형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특징에 따른 정박효과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재판에서 성별에 따라서 정박효과가 차이를 보이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 2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행되었다. 총 설문응답 시간이 매우 짧은 참가자들과 감정형용사 목록을 통해 정서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참가자들을 제거하였지만, 그럼에도 온라인 특성 상 일부 불성실한 참가자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또한 연구 2에는 중립정서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박점도 하나만 제시되었기 때문에 정박효과의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에는 오프라인 연구로 중립정서 조건과 정박점 조건을 추가하여 연구 2의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 명의 참가자가 개인적으로 양형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7~9인으로 구성되어 집단수준에서 토의를 진행하고 만장일치나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집단 의사결정은 개인 의사결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집단 의사결정은 합의 과정에서 집단사고(group think)가 일

어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중범죄사건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책임감이 분산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집단수준 양형판단의 정박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박효과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박효과가 더 강하거나 약하게 나타나는 조건을 밝혔으나, 무엇이 원인이 되어 정박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시나리오를 읽고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경범죄사건에서는 검사구형량이 낮은 높은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없었는데, 이 때문에 검사구형량에 구애받지 않는 객관적인 양형판단이 가능했을 수 있다. 반면에 중범죄사건에서는 검사구형량이 높으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도 높았다. 즉 중범죄사건에서는 검사구형량이 사건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어 그것이 최종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해봐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양형에 대한 최종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형량 결정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다는 연구결과(최수형, 2011)에 비추어 볼 때,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의 매개효과 또한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대성 (2012).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의 양형 참여. 법학연구, 15(1), 185-213.
- 김상아 (2016). 파급효과 예측과 위험감수 의사

- 결정.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
반대학원.
- 김병수 (2010). 국민참여재판의 중간평가. 형사
정책연구, 311-348.
- 김청택, 최인철 (2010). 법정 의사결정에서의 판
사들의 인지편향. 서울대학교 법학, 51(4),
317-345.
- 박광배, 김상준, 한미영 (2005). 가상적인 재판
쟁점에서의 현역판사의 판단과 모의배심
의 집단판단에 대한 인지적 방략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59-84.
- 박형관 (2012). 배심원 양형에 관한 쟁점 검토.
형사정책연구, 23(2), 41-74.
- 박희정 (2015). 판단자의 부정적 감정과 거짓말
판단과의 관계에서 확실성의 매개효과 검
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2),
57-70.
- 법원행정처 (2014).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서울: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2016). 2008-2015년 국민참여재
판 성과분석. 서울: 법원행정처
- 안대회 (2010). 심리학 밖의 심리학들: 법적 판
단과 심리학.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논
문집, 2010(단일호), 121-134.
- 이지혜, 박우현, 이수정 (2014).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요인이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미치
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25-43.
- 장효진 (2011). 감정동사 및 감정형용사 분류
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9-34.
- 조인현 (2013).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배심원의
법적 기능-오판 (誤判) 발생의 문제점, 그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15(1), 259-290.
- 최수형 (2011). 배심원의 범죄사실 및 양형판
단에 대한 연구. 범죄와 비행, 1, 227-250.
- Ambady, N., & Gray, H. M. (2002). On being
sad and mistaken: mood effects on the
accuracy of thin-slice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4),
947-961.
- Bodenhausen, G. V., Sheppard, L. A., & Kramer,
G. P. (1994). Negative affect and social
judgment: The differential impact of anger
and sadnes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1), 45-62.
- Chapman, G. B., & Bornstein, B. H. (1996). The
more you ask for, the more you get:
Anchoring in personal injury verdic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0(6), 519-540.
- Chapman, G. B., & Johnson, E. J. (2002).
Incorporating the irrelevant: Anchors in
judgments of belief and value. *Heuristics and
biases: The Psychology of Intuitive Judgment*,
120-138.
- Cheng, P. W., & Holyoak, K. J. (1985).
Pragmatic reasoning schemas. *Cognitive
Psychology*, 17(4), 391-416.
- Cooley, E. L., & Nowicki, S. (1989).
Discrimination of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by depressed subjects.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5(4), 449-465.
- Desantts, A., & Kayson, W. A. (1997).
Defendants' characteristics of attractiveness,
race, and sex and sentencing decisions.
Psychological Reports, 81(2), 679-683.
- Englich, B., & Mussweiler, T. (2001). Sentencing

- Under Uncertainty: Anchoring Effects in the Courtroo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1(7), 1535-1551.
- Englich, B., Mussweiler, T., & Strack, F. (2006). Playing dice with criminal sentences: The influence of irrelevant anchors on experts' judicial decision ma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2), 188-200.
- Epley, N., & Gilovich, T. (2005). When effortful thinking influences judgmental anchoring: differential effects of forewarning and incentives on self generated and externally provided anchor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8(3), 199-212.
-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New York: McGraw-Hill.
- Forgas, J. P. (1998). On being happy and mistaken: mood effects on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318-331.
- Forgas, J. P., & Bower, G. H. (1987). Mood effects on person-perception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1), 53-60.
- Guthrie, C., Rachlinski, J. J., & Wistrich, A. J. (2002). Judging by Heuristic-Cognitive Illusions in Judicial Decision Making. *Judicature*, 86, 44-50.
- Hafemeister, T. L. (1993). Juror stress. *Violence and Victims*, 8(2), 177-186.
- Korobkin, R., & Guthrie, C. (1994). Psychological barriers to litigation settlement: an experimental approach. *Michigan Law Review*, 93(1), 107-192.
- Park, J., & Banaji, M. R. (2000). Mood and heuristics: the influence of happy and sad stated on sensitivity and bias in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6), 1005-1023.
- Pratkanis, A. R. (1989). The cognitive representation of attitude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71-98.
- Robbenolt, J. K., & Studebaker, C. A. (1999). Anchoring in the courtroom: The effects of caps on punitive damages. *Law and Human Behavior*, 23(3), 353-373.
- Schmid, J., Fiedler, K., Englich, B., Ehrenberger, T., & Semin, G. R. (1996). Taking sides with the defendant: Grammatical choice and the influence of implicit attributions in prosecution and defense speech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inguistics*, 12(2), 127-148.
- Semmler, C., & Brewer, N. (2002). Effects of mood and emotion on juror processing and judgment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0(4), 423-436.
- Simmons, J. P., LeBoeuf, R. A., & Nelson, L. D. (2010). The effect of accuracy motivation on anchoring and adjustment: Do people adjust from provided anch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6), 917-932.
- Srull, T. S. (1987). Memory, Mood, and Consumer Judgment. *NA-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4(1), 404-407.
- Tversky, A. & Kahneman, D. (1974).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 1124-30.
- 1 차원고접수 : 2020. 09. 07.
심사통과접수 : 2020. 10. 26.
최종원고접수 : 2020. 11. 23.

Juror Judgmental Bias in Korean Jury Trial: Sentencing Demand and Anchoring Effect

Yumi Lee

Sungshin Women's University

Young Il Cho

Dongguk University

When a person suggests an estimate under uncertainty, (s)he tend to rely on the information and number provided in advance. As a result, their final estimate would be assimilated to the initial value. This phenomenon is called "anchoring effect". The present research examined anchoring effects observed in law courts. Sentencing decision of jurors can be influenced by the sentence demanded by the prosecutor. Specifically, this study demonstrated the condition in which anchoring effect would be stronger and practical solutions for lowering anchoring effect. Study 1 demonstrated whether gravity of criminal cases and levels of anchor influenced anchoring effects. As expected, anchoring effect was stronger in a heavier criminal case than in a lighter one. When a low anchor was provided in a lighter case, anchoring effect was stronger compared to when a high anchor was provided. Study 2 examined how emotion affects anchoring effects. The results showed that anchoring effect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stronger with feelings of anger than of sadness. Study 3 examined the solution for reducing anchoring effects in a court. When activation of selective-accessibility model was prevented, anchoring effects significantly decreased. These results can help solve the problems about juror judgmental bia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jury trial.

Key words : Judgmental bias, Anchoring effects, Judicial decision-making, Juror decision making, Korean jury trial